

가요 창법 연구 -소몰이 창법-

조태선*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A Study of Vocalization for Korean Pop Music So-mo-ri Technique

Tae-Seon Cho*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2000년대 들어서 가요계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많은 남자 가수들이 거의 똑같은 목소리,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현상이 그것이다. 혹자들은 그것을 “소몰이 창법”이라 이름 붙였는데 당시에는 특이한 목소리로 인해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80년도 초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히트를 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의 창법을 익히고자 노력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앨범까지 발표한 적은 유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몰이 창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한 발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서론

순수음악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독특한 느낌과 개성이 요구되는 음악이다.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다소 정적인 음악이 순수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대중들의 취향이나 욕구에 맞추어 표현하는 동적인, 적극적인 음악이다. 이렇듯 대중음악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줄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간 대중음악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며 살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대중가요를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 대중음악분야에도 그러한 유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가 일명 “소몰이 창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몰이 창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한 올바른 창법인지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본론

2.1 음악적 배경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를 살펴보면 70년대 포크, 80년대 발라드, 90년대 랩 등의 장르가 각 시대별로 유행했었다. 이처럼 대중음악분야에 있어서 유행이란 음악의 장르별로 존재해왔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 역시 그 음악장르에서 요구하는 창법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였다.

포크의 경우는 적절한 중음의 음역대에서 쉽고 편한 창법으로 노래하였고 락앤롤은 중, 고음의 음역대에서 다소 커칠고 터프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였다. 또한 발라드의 경우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소 깔끔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는 해당 장르의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치로서 가사, 멜로디 구성, 악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목소리로 불러야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면서 그의 창법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가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창밖의 여자 후렴구중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소리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과 같은 파워풀한 창법이 그것인데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발성법이라 상당히 획기적이다. 또한 그러한 발성법은 동양인의 작은 체구에서 크고 우렁찬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소울에 국악의 창을 접목해서 표현한 샤우팅 창

법으로 파워풀한 가창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당시 모든 가수들이 조용필과 같은 발성을 구사하기 위해 나타나할 것 없이 창을 배우러 다녔다.

유행이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반해 조용필의 창법은 체형이 작은 한국인이 파워풀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가수들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개발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시대의 유행이라고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밖의 여자”에서 보여준 조용필만의 발성법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파워풀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랩, 힙합 등을 거치면서 중반 이후 우리 가요계는 흑인음악인 R&B(알앤비) 스타일의 노래가 유행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R&B에 소울(Soul)이 가미된 보다 진한 스타일의 발라드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흑인음악인 R&B 장르를 노래하는 가수들은 당연히 흑인가수들의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으며, 그러한 창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였다.

솔리드, 박정현, 바이브 애즈원, 빅마마 등이 대표적인 가수들인데 이들이 10, 20대 젊은층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서 가요계에는 R&B 열풍이 불었다. 많은 신인가수들이 R&B 스타일의 앨범을 발표했고, 그러한 앨범들은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따라서 모든 제작자들도 R&B가 가능한 가수를 선발했고 부족한 경우 R&B 창법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서로 비슷한 종류의 곡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대중들은 좀 더 새로운, 좀 더 느낌 있는 노래를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가수와 제작자들은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R&B 노래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울 등의 창법을 가미하여 보다 더 자극적이고 진한 스타일의 곡들이 발표되게 되었다.

2.2 소몰이 창법

어느 때 부터 인가 많은 가수들, 특히 젊은 가수들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 하였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 비롯된 것도 아닌데 모든 가수들이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몰이 창법”인데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는 정체불명의 창법은

한동안 가요계의 대세를 이루었다.

소몰이 창법이란 소를 몰고 갈 때 “워-- 워--” 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른다하여 불려진 명칭인데, 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래 할 때의 일반적인 목소리보다 소리에 호흡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소리보다 호흡이 먼저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공통점이 있다.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하는 대표적인 외국가수로는 제임스 잉그램, 존레전드, 레이찰스, 마이클볼튼 등과 국내가수로는 임재범, 박효신, SG워너비, 김진호, 원티드, 하동균,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환희, JK김동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구분이다. 그 이유는 소몰이 창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가수들보다 성량이 크거나, 혹은 노래 중간에 워--워--하는 추임세를 넣으면 모두 다 소몰이 창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는 소몰이 창법이 어떤 특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3 분석

소몰이 창법은 흑인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90년대 초반 정통 흑인음악인 R&B가 국내에 소개되었고 재미교포출신 가수들인 솔리드(김조한), 박정현 등 가수들의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유행을 하게 된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발성에 노래 뒷부분을 꺾어 R&B의 특징만을 살려 노래했다. 따라서 흑인음악 고유의 깊은 느낌은 없었고 단지 R&B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따라 부르는 형식이였다. 90년대 말부터 시작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R&B에 역시 흑인음악인 소울창법이 도입되어 목소리에 섞이는 호흡의 양이 많아지고 성량이 커진 것이다. 어찌 보면 겉모양만 흉내 낸 R&B에 비해 다소 진보된 발성이라 할 수 있다. 대중들 역시 원음에 보다 가까워진 노래에 매력을 느끼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스타일에 열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2000년대 초반 가수 박효신의 등장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가수들과는 사뭇 다른 굵고 볼륨감 있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외국의 팝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볼륨감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리 팝을 잘 부른다 해도 단순히 흥

내에 불과할 뿐 성량이나 느낌 등 모든 것을 구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박효신은 타고난 체격조건과 뛰어난 성량으로 한국가수로서의 콤플렉스를 일거에 해소하였다.

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울림통 역할을 하는 상체부분, 소리의 통로이면서 소리를 내는 성대, 그리고 큰 입이다. 그와 더불어 머리와 키의 크기 역시 소리의 양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애당초 우리 신체 구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박효신의 성량은 기존의 가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소리의 느낌(feel) 또한 흑인음악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첫 번째 앨범발표와 함께 데뷔하면서 그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상징이 되었으며 대중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발성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 많은 가수들이 그의 목소리를 따라 흉내 내기 시작했다. 박효신의 그러한 창법은 가수들뿐만 아니라 PD, 제작자들에게까지도 가수가 갖추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창법으로 인식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스타일의 앨범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4년 SG 워너비가 음반을 발표하고 이 팀의 멤버인 김진호 역시 발성자체를 목소리에 최대한 호흡을 섞어 성량있는 굵은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그와 더불어 노래의 간주나 후반부에 워--워--워-- 와 같은 추임새를 많이 넣었는데 이 또한 SG워너비의 빅히트와 함께 많은 가수들이 새로운 창법으로 인식하게 되어 흉내 내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을 타고 원티드, 하동균, m2m, 플라이트투더스카이, 씨야, 더윈, 조은 등의 가수들이 그러한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후 가요관계자들에 의해 “소몰이창법”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소몰이창법은 워--워-- 하는 추임새 말고도 기존의 발성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노래를 부를 때 입모양 발음과 호흡, 소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에 반해 소몰이 창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에 호흡을 많이 섞어서 부른다는 점과 두 번째는 입모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호흡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입을 벌리면서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호흡과 발음 즉 소리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성을 하는 배경에는 흑인음악의

영향이 크다. 가요계의 흐름이 R&B와 소울을 거치면서 최대한 흑인보컬과 같은 Feel과 성량이 필요했지만 체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흑인음악 창법은 다른 장르 보다 목소리에 섞이는 호흡의 양이 아주 많다. 폐활량이 큰 흑인들만에 독특한 창법인데 이러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호흡과 소리를 따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체격구조와 폐활량의 차이로 인해 한 번에 구사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취해진 방법이었던 것이다.

신인가수들 중에는 체계적으로 호흡이나 발성법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몰이 창법은 많은 후유증을 동반했다. 흑인보컬들의 경우 훌륭한 체격조건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그러한 소리를 오로지 성대 즉 목만을 이용해 억지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무리한 성대의 사용으로 인해 성대결절은 물론이고 호흡의 강제배출은 두통을 동반하였다. 또한 소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두세 곡 이상 연속해서 부를 경우 몸에 무리가 와서 금방 피곤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결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다. 서양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은 체격뿐만 아니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격조건을 극복하고 그들에 버금가는 뛰어난 창법을 만들어낸 조용필은 그래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조용필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샤우팅을 해결하기 위해 국악발성법을 응용했으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대가 아닌 몸 즉 몸통으로 소리 내는 방법을 부단한 연습과정을 통해 만들어냈던 것이다.

소몰이 창법은 한때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잘못된 발성법의 부작용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부터는 그와 같은 창법으로 노래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몰이 창법이란 말을 탄생시켰던 SG 워너비 역시 소몰이 창법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참고문헌

- 1) 조태선 2005 대중가요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2) 박승희 1994 가수가 되자 녹진
- 3)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 4) 최동현 1999 판소리 이야기 작가
- 5)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름
- 6) 오한승 2001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김영사